



제목	이슬람의 시간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시그마북스
발행일	2017. 5. 15.
저자	타마라 손 서종민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376
ISBN 또는 ISSN	978-898445874

내용 요약

이 책은 이슬람의 형성기로부터 중세 이슬람 문화의 개화기를 거쳐 그 이후의 쇠락과 식민지 시대 그리고 냉전과 냉전 이후 지정학 속에서 현재까지 이어진 식민 지배의 잔재를 벗어나기 위한 근대의 다수 무슬림 국가들의 회복 운동에 이르기까지 장대한 이슬람 역사를 연구한 책이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확립'이라는 제목의 1장은 이슬람 형성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그 시기의 무슬림들이 자신의 지역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일은 물론, 그때까지 사회정의 없이 살았던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 이상과 제도를 전해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2장 '이슬람의 황금기'는 중세 이슬람 문화의 개화기를 가리킨다. 저자는 이 때를 우마이야 왕조에 의해 이슬람 통치체계의 첫 번째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평가한다. 정치권과 종교적 권한이 확실히 구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종교적 자유와 유연한 행정구조 덕분에 이 시기는 상당한 수준의 성장과 안정성이 확보되었고 그것은 이슬람 과학과 예술이 꽃피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다른 이슬람 학자들의 평가와는 달리 저자는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제국과 무굴 제국의 시대가 이슬람의 황금기가 아니라 유럽 식민주의의 희생양이었다고 3장에서 주장한다. 4장 '식민주의와 개혁'은 무슬림 세계에게 재앙의 시대였던 20세기의 이야기를 다룬다. 하지만 이 시기 이슬람 개혁가들은 이전 세대의 개혁가들과 달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공감하고자 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호소할 수 있었다고 한다. 5장 '현대의 이슬람'에서 저자는 압제와 테러리즘을 이슬람교로 정당화하려는 것을 헛된 시도라고 주장하고, 평화와 민주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현대 주류 무슬림들을 소개한다.